

#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인간과 죄, 세션 19, 원죄, 즉각적 귀속, 타락의 영향. 능력 또는 무능력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의 교리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원죄, 즉각적인 귀속, 타락의 영향, 능력 또는 무능력입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합니다.

우리는 즉각적 귀속을 살펴보고 그 강점과 그 강점이 답하려고 시도한 문제점, 즉각적 귀속에 대한 반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담을 인류의 자연적, 대표적 수장으로 제시합니다.

루이스 존슨이 지적했듯이, 성경의 전개는 아담에게 주어진 지배권의 약속과 위협이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용문, 마지막 아담의 행위가 대표적 행위로서 신자들의 의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처럼, 첫 번째 아담의 행위도 대표적 행위로서 그에게 연합된 자들의 정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S. 루이스 존슨의 원죄에 대한 기사 312 쪽.

둘째, 즉각적인 귀속은 우리의 상태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났으며 분명히 저주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서 2:1~5를 비교해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는 한때 이 세상의 행실을 따라 행하며 공중의 권세 잡은 왕을 따라 행하던 허물과 죄악 가운데서 죽었고, 지금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의 욕망을 행했으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성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인간은 아담에서 재판을 받고 타락했거나, 재판 없이 정죄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았거나, 시편 51편 5절, 당신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는 죄를 지었고, 죄로 제 어머니가 저를 잉태했습니다. 아니면 죄가 전혀 없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즉각적인 귀속은 궁극적으로 신비인 것을 가장 만족스럽게 설명합니다.

존슨 312. 가장 중요한 것은 즉각적 귀속이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의 주장과 가장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만으로도 사도들의 주장의 지배적인 원칙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는 각자의 인종을 대표합니다.

두 아담의 각각의 행위와 그 행위가 그들의 백성에게 미친 영향 사이에는 분명한 평행선이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정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그의 백성에게 정당화와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대표적 종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로마서 5:12-21은 이 대표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의 종족의 정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의롭다 함을 설명합니다

넷째, 즉각적 귀속은 왜 아담의 첫 번째 죄만 귀속되고 그 이후의 죄나 이브의 죄는 귀속되지 않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존슨 313쪽. 다섯째, 즉각적 귀속은 로마서 5:13, 14와 12절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다.

그리스어로 '가르'라는 단어는 13절과 14절이 12절을 설명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용하자면, 그러나 12절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펠라기우스와 다른 사람들, 또는 모두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즉각적인 귀속, 또는 심지어 모두가 실제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현실주의입니다. 이 구절들은 12절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모든 사람이 대표자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단언한다면, 다른 모든 것은 명확합니다. 인용문 닫기, Johnson 313. 제 의견은 13절과 14절과 12절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해석의 모든 세부 사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 어떤 사람들은 다음 구절이 즉각적인 귀속과 모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명기 24:16. 아버지는 자식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자식도 아버지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각자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신명기 24:16. 이 구절은 신성보다는 시민 정부를 다룬다. 우리는 둘을 분리해야 한다.

이 구절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섬기고 평가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대표자로 죽으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신학, 신학에서의 영적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정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 18장을 근거로 즉각적인 귀속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다시 존슨을 인용하지만, 이 구절은 인간이 죄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죄나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귀속되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땅 속의 신성한 통치 원칙이나 신성한 정의를 말합니다.

악한 자는 죽을 것이다. 의로운 자는 물론, 신성한 방식으로 살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구절이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현실주의자들, 세 번째 반대 의견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서 7장, 9장, 10장을 인용하여 현실적 귀속을 옹호하고 이 구절을 아담의 죄에 대한 현실적 귀속에 적용한다.

히브리서 7:9, 10, 멜기세덱 구절. 십일조를 받은 레위 자신이 아브라함을 통해 십일조를 바쳤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그는 여전히 그의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슨은 히브리서 7:9의 특별한 전형적 성격을 고려할 때 아브라함에게 레위가 십일조를 바쳤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관계는 전형적일 뿐 실제적인 것이 아니며, 진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멜기세덱이 예수의 성육신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저에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영원히 제사장으로 남아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멜기세덱에 대한 족보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부모도 없고 후손도 없는 듯했다. 원죄 교리의 체계적이고 목회적인 의미. 예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신 일, 우리에게 그의 진리를 계시하신 일, 대표의 원칙,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롭게 대하신 일, 그리고 그의 지혜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원죄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창조 작품의 선함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죄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타락했고, 인류의 수장인 아담은 우리의 대표자였습니다.

타락한 인류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 사람들은 아담과 그들 자신의 실제적인 객관적인 죄책감과 죄의 오염으로 인해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바울이 로마서 5:12-19에서 원죄를 다루기 전에 로마서 1:18-3:20에서 실제 죄를 다룬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둘 다 정죄의 근거입니다. 원죄와 실제 죄. 성경에서 원죄 교리의 목적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책임을 없애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것을 확립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필수적입니다.

원죄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로움에 대한 더 완전한 이해를 낳을 것입니다. 로마서 5:12-21의 주요 목적과 맥락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 심지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계인의 죄책감을 기뻐하지 않지만, 그것은 역사와 신학의 사실인 듯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외계인의 의로움을 기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 심지어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하는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기뻐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 심지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교리 아래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데, 그것은 타락과 능력 또는 무능력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방금 그걸 했어. 우리는 방금 거기서 네 가지 일을 했어, 테드. 세 가지 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타락의 영향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능력 또는 무능력에 대한 바울의 교리를 검토합니다. 바울은 원죄의 신학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신의 곤경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가 말한 것을 보기 위해 그의 글을 조사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싶습니다. 첫째,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의지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구속됩니까? 둘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르미니우스파나 칼빈주의의 선행적 은혜에 대한 관점이 옳습니까? 다른 관점이 옳습니까? 고린도전서 2:14과 16에 대한 조사.

고린도후서 4:1~6에 대한 조사. 그다음 요한복음 6장, 44장, 65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14~16에 대한 조사. 저는 정말 그 장 전체를 읽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왔을 때, 나는 높은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증거를 여러분에게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약함과 두려움과 큰 떨림으로 여러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말과 내 메시지는 지혜의 그럴듯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영과 능력의 증거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성숙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지혜를 전하나니,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의 멸망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추인 지혜를 전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 중 아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으니, 영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피느니라.

사람의 생각을 아는 자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없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기 위함이요 우리는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영으로 가르치는 말로 전하니 곧 영적인 자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통역함이니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깨달을 수 없나니 이는 영적으로 분별함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깨달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문맥.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형에 집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의 복음을 전파할 때 인간의 지혜나 설교 능력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전파할 때, 그는 인간의 지혜나 말하는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성령의 능력에 있었습니다(1-5절). 다른 의미에서, 복음의 메시지는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성숙한 신자들은 이것을 인식합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며, 그 근원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7절). 하나님은 창조 전에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지혜를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최종 목표는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지혜를 계시하셨는데, 이 지혜는 이전에 구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영으로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로마서 16:25, 26, 베드로전서 1:10-12).

1세기의 세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였을 때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제 그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계시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인간도 알아내어 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알린 것입니다(고린도전서 2:6~10). 성령은 하나님의 비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에는 오직 개인만이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아는 평행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압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세상 체계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영으로부터 세상의 지혜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고, 그 영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주신 것들을 배웠습니다.

차례로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지혜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가 가르친 말이 아니라 영이 가르친 말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말로 표현하거나, 영적인 진리를 영적인 사람들에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10절~13절).

ESV는 실제로 두 번째 대안을 선택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영적이지 않은 psychikos 사람을 영적인 사람인 pneumatikos 와 대조 합니다. 맥락상 이 두 단어는 각각 하나님의 영이 부족하여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을 의미해야 합니다.

신의 영의 것들인 네코마이 의 노믹한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즉, 그것은 단순히 관습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물이 있는 방식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영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영을 가진 사람, 영적인 남자나 여자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영적인 것에 대한 분별력을 행사합니다. 이 사람은 영적 영역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에 접근할 수 있고, 그것에 복종합니다. 14절과 15절.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의 일은 무엇인가? 문맥상 14절에서 2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은 영적인 말이나 영적인 사람들에게 표현된 영적인 것들이다, 13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들이다, 12절.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들이다, 11절.

그것들은 하나님의 깊은 것들입니다. 10.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10.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입니다. 7. 그것들은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6. 그것들은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4절.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2절. 사실, 1절로 돌아가 보면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14절에서 언급된 영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 계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계시에는 다른 주제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것, 9절. 저는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계시로 정의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17에서처럼 가장 넓은 의미로 이해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그 모든 함축, 말하자면 하나님의 조언입니다.

성령은 1:1-6에서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14절을 성령의 이중적 역사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은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계시합니다(10-13절).

위에서 논의한 대로, 하나님의 영의 일은 영의 계시에서 기원한 복음의 사도적 전파를 가리킨다. 둘째, 여기에는 영의 사역이 두 가지 있다. 그는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계시한다.

둘째, 그는 사람들이 사도적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14절에는 영의 역사의 두 번째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일합니다.

우리는 영의 사역의 두 가지 측면을 계시, 전달, 구원의 조명, 수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의 신학적 결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사도적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능력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둘째, 그것은 그에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셋째,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구절은 에베소서 2장에서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영적 죽음의 상태에 호소함으로써 복음에 응답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4장에서처럼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사탄의 역사에 돌리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찍을 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영을 떠나서, 사람은 이 사악한 세상의 지혜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실제로 무지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비꼬는 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소위 지혜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은 어리석음입니다. 농담하시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에 대한 메시지? 죄인들이 구원을 위해 그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준 영뿐입니다. 로버트 던스바일러가 정확히 가르쳐 주었듯이, 우리는 주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 성경 전체를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연구의 시작 부분에서 제기한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잠정적으로 대답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절이 그 중 일부에 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말입니다.

의지의 자유 속박 문제는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의지 속박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암시됩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지혜에 스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의 의지는 받지 못하고 그의 마음은 죄를 이해하거나 죄에 묶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두 번째 질문에 답하는 듯합니다. 그녀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의 일부이며, 데코 마이의 규범적 존재입니다. 이 구절은 영의 사역에 대한 믿음의 능력에 능력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선행적 은혜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기 전에 오는 은혜는 아르메니아와 칼빈주의 모델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영의 보편적인 역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영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영을 구원하는 역사는 여기서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영입니다. 이 구절은 같은 영을 소유하거나 갖지 못하는 것을 믿음이나 불신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의 존재 또는 부재에 영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이해와 같은 것에 대한 불신의 거부를 기인합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근거로 나는 칼빈주의의 예방적 은혜 관점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두 번째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나는 요한복음 6장을 다룰 것이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 6장을 그 위에 있는 순서대로 다룰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과 65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에 대한 담론입니다.

그리고 6:44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를 끌어당기지 아니하시면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65.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셔야 한다고 가르치심으로써 청중을 충격에 빠뜨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48-58.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6:62,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65. 요한복음 6:65에서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

요한복음 6:44에서 그의 이전 주장을 되새겨보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이 두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35~45, 54, 65에 따르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들을 준다. 이것은 요한의 선거 그림 중 하나이다.

요한복음 6:37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내게 올 것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는데, 이는 아버지가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아들에게로 이끕니다. 6:44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일인 요한의 이끄심은 바울의 효과적인 부르심 또는 외적인 복음 부르심을 통해 내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생각과 비슷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들에게 옵니다, 35, 37, 44, 45, 65.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는 것이 믿는 것과 평행하며, 그것이 오는 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옵니다. 요한복음 6:35의 평행은 예수님께 오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준 사람들을 지킨다. 요한복음 6:37, 39.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은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사람은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6:39, 6:40, 6:44. 여기서 예수는 의로운 자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생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준다. 아버지는 그들을 아들에게로 끌어당긴다. 그들은 아들에게 온다.

그들은 그를 믿는다. 아들은 그들을 지키시고, 아들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실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사역은 요한복음 6:44, 65의 신학적 틀을 형성하며,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확증하도록 이끈다.

아버지 와 아들 사이에 조화가 있습니다 . 아버지는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끅니다. 아들은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 키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가 아들에게 주고 이끌어 주는 동일한 사람들과고, 아들을 믿는 동일한 사람들이 그에 의해 보존되고 그에 의해 일으켜질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행위의 틀 안에서 요한복음 6:44, 65를 연구하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지도자의 믿지 않는 불평에 대답하십니다. 너희들끼리 불평하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요한복음 6:43, 44.

예수님의 말씀은 눈길을 끈다. 그는 듣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불신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그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 오는 것이 그를 믿는 것과 평행을 이루는 여섯 가지, 35가지를 기억하라.

그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이끌리지 않는 한 아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의 계획처럼 가정적으로 무능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평하고 믿지 않는 청중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면시키고 계십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해석자들은 요한복음 12:32에서 같은 단어인 끌어당기다의 병행 사용에 호소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이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질 때,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기, 저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땅에서 들어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음 구절을 보세요, 그리고 그는 구원 안에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사람은 모든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실례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서 말입니다. 우리는 몇몇 그리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한 후에, 요한복음 12장 20-22절에서, 그가 분명히 그들을 무시하고 다가오는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한 맥락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요한복음 12장 23-28절). 하지만 그는 그리스인들을 실제로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끌 모든 사람 안에 그들을 포함시킵니다. 예수님은 구별 없이 모든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 그리스인과 유대인을 말씀하시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개인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44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아버지가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로 이끈다는 생각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용문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인용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의 연속성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6장 44절을 모든 사람이 이끌린다고 말한다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위해 예수에 의해 일으켜질 것이라고 결론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편주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 구원받을 것이라는 견해는 복음주의 칼빈주의자와 아르미니우스주의자 모두가 거부하는 견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는 요한복음 6:44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 구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지 않는 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 그렇게 하시고, 아들은 그들을 최후의 구원을 위해 키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6:44에 대한 결론은 요한복음 6:65에서 확인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투덜거리는 군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했노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를 믿을 수 없다고 확인하십니다.

요한복음 6:44과 6:45 바로 앞 구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불평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실제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능력함을 돌리십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파의 가상 무능력 개념과 모순됩니다.

마지막 구절은 고린도후서 4:1~6입니다. 문맥은 고린도후서 3:7~18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7~18에서 새 언약의 영광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 언약의 영광은 새 언약의 영광과 비교하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새 경륜은 전적으로 영광스럽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사역도 영광스럽습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주 예수님의 새 언약의 사역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1~6에 대한 해석. 따라서 diatata는 새 언약 사역의 영광에 대한 이전 논의로 되돌아갑니다. 다음 분사구는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 사역이 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사역을 가진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의 자비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비를 받았듯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그를 섬기는 특권은 사도들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4:2. 사도들은 주님을 섬기는 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할 것도,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최종적인 아오리스트 , 부끄러운 숨겨진 것들과 부끄러운 질적 유전성을 포기했습니다 . 그들의 적들은 그들을 불경건하다고 거짓으로 비난했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은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영광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빛난다. 그러므로 숨은 죄의 자리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인간에게 열려 있다.

인용문, 그리고 우리는 교활하게 견지 않습니다 . 즉, 그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반대자들의 비난과는 반대로 말입니다. 인용문: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위조하지 않습니다.

단고, 인용하고, 어리석은 사역에 모순되는 한 가지를 말하고 다른 것을 행함으로써. 그러나 인용하고, 반대로, 진리의 공개적인 선포를 통해, 객관적인 소유격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한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베일을 벗은 얼굴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본다.

그들은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넷, 셋, 바울의 반대자들은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분명하다면 왜 모두가 당신이 보는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까, 바울? 바울, 당신의 메시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거짓 사도이고, 당신의 메시지는 단지 당신 자신의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인용,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습니다. 인용 닫기.

바울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나 그의 계몽적인 복음을 비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요, 어둠은 빛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청중 속에 있습니다. 사실, 그의 영적 상태는 복음에 대한 그의 반응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숨겨진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멸망하는 자들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한 관계절을 통해 더 자세히 설명됩니다. 아니면 믿지 않는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큰 곤경에 처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좋은 소식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더 강력한 사악한 힘의 손아귀에 빠져 있다. 악마가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다. 그들의 마음에 사탄의 효과가 있었다.

바울은 복음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사탄 자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의 빛으로부터 눈멀게 할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사탄의 눈멀게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매우 구체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사고 과정에서 일하여 그들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만큼 밝아지지 않도록 합니다. 빛과 관련된 단어인 눈멀다, 보다, 빛, 영광, 형상을 주목하세요.

바울은 복음에 명확성이나 영광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좋은 소식은 그리스도의 영광, 곧 우리가 이전에 인류에 대한 연구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님은 볼 눈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주어진 수단은 멸망하는 자들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들의 영적 눈을 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다섯째.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왜 어떤 사람들이 이 분명하고 빛나는 복음을 믿지 않는지 설명하는 데 시간을 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2절의 주요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예수를 위한 여러분의 종으로 전파합니다. 인용문 닫기.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숨겨진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은밀하게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불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솔직하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더 설명합니다. 넷째, 우리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과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는 새 언약 사역의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그는 복음이 왜 그렇게 영광스럽고 분명한지에 대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 언급한 것은 그가 다른 사람,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메시지를 전파하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과 그리스도 때문에 듣는 자들의 종들. 그들은 메시지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의 종들이며, 그들도 영광스러운 주님을 알게 될 수 있도록 섬깁니다. 넷째, 여섯째.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빛을 그들에게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비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신 분입니다.” 빛과 모든 것의 위대한 창조주께서 바울에게 영적인 빛을 주신 책임이 있습니다

복음은 빛이지만, 마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합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창조주 자신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십니다. 저는 바울이 복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조명 사역이 재창조의 사역이라고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든, 그것은 창조물만큼이나 창조주의 일입니다. 따라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여 바울은 복음이 빛으로 가득하다는 확신을 굳건히 지킵니다. 사람들은 멸망하고 이 사악한 세상의 거짓 신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복음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바울과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구원적으로 비추십니다. 고린도후서 4:1-6의 신학적 결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한 가지 이유는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바울은 우리 구절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의 뜻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언급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생각이나 마음은 사탄에 의해 눈멀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눈멀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3절과 4절을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숨겨진 자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며, 그들의 경우 사탄이 그들의 생각을 눈멀게 했습니다. 언어는 속박과 자유보다는 빛과 어둠의 은유로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죄인들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그들의 믿지 않는 생각을 눈멀게 했습니다. 그들은 더 큰 존재가 와서 그들을 해방할 때까지 그렇게 묶여 있거나 눈멀게 됩니다.

우리의 구절은 우리가 처음에 물었던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하는 듯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악마에게 눈이 멀었고 신성한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는 또는 그녀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는 복음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그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의 불신에 대한 이유는 사탄이 그를 눈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1-6은 신의 은혜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조명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으로 마음에 빛을 비추실 때에만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인류에 대한 일반적인 조명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효과적이고 특별한 조명이 실제로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으로 능력 또는 무능력에 대한 간략한 논의를 마칩니다. 분명히 고린도전서 2:14-16, 요한복음 6장, 고린도후서 4:1-6에서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치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을의 영향에 대한 다이어그램. 저는 Anthony Hoekema의 책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됨'에서 도움을 준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죄,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 법적, 도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법적 결과는 죄책감 또는 정죄입니다. 도덕적 결과는 오염 또는 부패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죄로 인해 손상되고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오염은 타락과 무능함 둘 다에서 나옵니다. 전적인 타락은 인간이 가능한 한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강의에서 몇 번 말했듯이, 바울은 특히 죄의 노이에틱한 효과로 마음을

골라냅니다. 방금 보았듯이, 성경은 또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효과적인 은혜 없이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거나 적어도 그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거듭남에서 일하시는 것과는 별개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있는 주제인데, 이 문맥에서 우리는 이 구절을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인간에 대한 당신의 말씀, 즉 우리가 당신의 특별한 창조물이며, 당신과 서로, 그리고 당신의 세상과의 관계를 위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며, 당신이 우리를 하나의 존재로 만드셨고, 당신의 은혜로 새 땅에서 영원히 몸과 영혼이 하나가 될 것이라는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무서운 묘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앞에서 겸손해지고 당신의 말씀, 당신의 영, 당신의 아들, 당신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제 죄를 인정하고 죄의 궁극적인 기원이 원죄이며 당신의 선한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아멘.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인간과 죄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19, 원죄, 직접적인 귀속, 타락의 영향, 능력 또는 무능력입니다.